

향기로운 예물

📍 **십일조현금** 기입 085-056206-04-030(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 이필레 김미경 김병을 김영애 김지한 김현구 문수경 박복례 박은숙 박종삼 방현욱
석형기 송부현 오영순 유은자 이상현 이월숙 이한웅 임형문 전순봉 정욱순 조규래 채희춘
천세력 최정규 황상근

📍 **선교현금** 기입 085-056206-04-086(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이진우 이필레 김기택 김순옥 김안나 김영애 김영진 문수경 박복례 박종삼 방현욱 오영순 유은자
이상희 이향교 이화순 전순봉 정욱순 홍유정

📍 **감사현금** 기입 085-056206-04-047(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강영성 김경엽 김병을 김현구 박순자 석형기 염영분 유은자 윤성훈 윤정호 이미자 이태일 전순봉
최선미 최정규 홍유정 황경연 무 명

📍 **일천번제현금**
이진우 김명숙 김민성 김수현 김정훈 김준구 김준현 김지훈 김춘하 김혜란 박민서 박순자 박정숙
방복순 배병찬 백경자 송백현 심순옥 안지영 양영옥 이경자 이기자 이미자 이상미 이설아 이소은
이승애 이오순 이육남 이인숙 임승주 전병구 정욱순 정혜지 주성락 최귀남 최선미 황영옥 김민혁
양일석 이노을 전지선 정승현 무 명

📍 **월정현금**

주간 성경연구

24주 * 새벽기도회 본문입니다 *			
주 일	예레미야 16장 1절 ~ 13절		
월요일	예레미야 16장 14절 ~ 21절	목요일	예레미야 17장 19절 ~ 27절
화요일	예레미야 17장 1절 ~ 11절	금요일	예레미야 18장 1절 ~ 12절
수요일	예레미야 17장 12절 ~ 18절	토요일	예레미야 18장 13절 ~ 23절

원로장로	이태일 정기성		
시무장로	윤조춘 강영성 김병을 최기훈 배경철 임만순 박권재 최성현 윤영준		
은퇴장로	방현욱 장영원 문영원 이일로 천세력 방석대 윤병호 윤정호		
교역자	부목사	김제호	
	전도사	이필레	
	주전임전도사	김두산	
	교육전도사	이승이 문수경	
찬양대	지휘자	할렐루야 : 김한나 호산 나 : 김안나 시온 : 에덴 : 최원지 엔 젤 : 이난수	
	반주자	오르간 심혜윤	
		피아노 김민지 오영주 김미희 공희라 정희연	
		클라리넷 박진숙 이난수	
		플룻 김민지	
	솔리스트	김안나 정예슬	
선교사	파송선교사	태국 : 김정숙	이집트 : 김진숙
		수리남 : 안석철 이성옥	A X 국 : 김해철
		미국 : 김다니엘	A X 국 : 이분옥
		미국 : 최윤희회	모잠비크 : 홍두표 강순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태국 : 박영성 정세미	태국 : 박경환 이순연
		멕시코 : 김홍기	A M A : 조동진
협력교회	제주 대광장로교회		
협력단체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세계선교회(G.M.S.), 서울남노회 목양선교회, 소망교도스, 영등포시찰회 중국세계선교회, 서울남노회 G.M.S.		

2019. 06 09. 주일 예배 설교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깨끗함	
마가복음 7장 14~23절	설교자 이진우 목사

더러운 것을 좋아하고 깨끗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씻고, 청소하고, 소독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렇듯 우리의 몸과 삶의 장소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는 열심을 가지고 있으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일에는 따른 소홀한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도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청결한 것은 환경이 청결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 바리새인의 깨끗함
- 본문 1~3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진 손으로 집어 먹은 음식은 결국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대야에 담긴 고인 물에 손을 씻지 않고 하인들이 손에다 부어 주는 물로 손을 씻었습니다. 씻어 낸 부정함이 고인 물을 통해 다시 손으로 묻게 되는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더러움의 근원은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임을 간과한 것입니다. 본문 15~16절을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18~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위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간음,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탐욕과 속임수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가 아닌가를 잊보며 책잡으려 하는 그 마음이 더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바록 제자들은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으로 먹어도 깨끗한 반면, 그것을 책잡는 데 온갖 신경을 기울인 바리새인들은 더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ی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자주 입에 올리고 삼니다. 진정으로 그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왈가왈부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2. 그리스도인의 깨끗함
- 본문 21~22절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고 했습니다. 참 무시무시한 죄이며 극악무도한 죄들이고 나오는 관계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예로 드신 나쁜 생각과 행동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들의 마음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장 흔한 죄들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질투,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죄악입니다. 많이 배웠든 그렇지 않든, 교회의 지도자이든 평신도이든, 우리는 언제나 이런 죄에 빠질 수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나 자신에게 하신 경고로 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마음은 이런 악한 것들과 전쟁을 치룹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의 허일 때가 많음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더러움에 노출되는 때는 우리의 허를 제어하지 못할 때입니다. 물론 그 허는 마음의 조종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로 악담과 비방으로 채워집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행동은 곧 나 자신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몸애 땀 습관처럼 너무도 쉽게 다른 사람의 잘못들을 입애 올릴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식 없이 비방하는 죄를 짓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을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옷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고 했습니다. 이사야가 말했듯이 우리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성령님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령주일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도의 마음에서 성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 것들로 채워집니다. 그렇게 더러워지고 상처 입으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을 충만히 받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물에 잠겨야 합니다. 아무리 깨진 독애 아무리 물을 부어도 깨어진 곳을 통하여 물은 흘러나갑니다. 그러나 깨진 독애 강을 속에 던져질 때 깨진 독이라도 가득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렇듯 성도는 은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은혜 안에 잠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과 예배의 삶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머물며, 기도를 통하여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솟아오르는 탐욕과 음란과 교만 같은 더러움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 해악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방치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습성을 돌아보면 너무도 안일한 부분이 많습니다. 성도는 회개함으로 죄를 씻고 죄를 멀리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진정한 예배함으로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며 은혜 가운데로 돌아옴으로 이 시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SINCE 1975

No. 45 - 24

2019. 06. 16.

대한예수교장로회

성현교회

Sung - Hyeon Presbyterian Church

표어: “여호와께 돌아가자!” (호세아 6장 1절)

목표: 1.진리 파수 2.천국일꾼 양성 3.민족 복음화 4.세계 선교

동산의 샘

A garden fountain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진우 Yee, Jin Woo
------------------------------	----------------------------

- 0823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33마길 18(개봉동, 성현교회)
- 18, Gyeongin-ro33Ma-gil, Guro-gu, Seoul, Korea
- 교회사무실: 2613-2080 / 2683-2080
- 팩 스: 2689-1230
- 홈 페이지: www.sunghyeon.or.kr

오전에배

[1부] 오전 7시 사화: 윤 조 훈 장 로

[2부] 오전 9시 30분 인도: 김 제 호 목 사

[3부] 오전 11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목 도 ————— 할렐루야찬양대

(Silent Prayer)

신 앙 고 백 ————— 사도신경 ————— 다 갈 이

(The confession of the Apostles Creed)

찬 양 ————— 찬송가 382(통432)장 ————— 다 갈 이

(Praise)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통 성 기 도 ————— 다 갈 이

(Prayer all together)

대 표 기 도 ————— [1부] 박 종 삼 집 사

(Prayer) [3부] 윤 조 훈 장 로

성 경 봉 독 [1,3부] 마가복음 7장 24~37절[신약p.65] 이 근 자 권 사

(Scripture) [2부] 사도행전 17장 10~11절[신약p.217]

찬 양 [1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찬송가200장) 다 갈 이

(Anthem) [3부] 오직 예수 [Michael Ware] 할렐루야찬양대

설 교 [1,3부] 예수님이 여시는 구원의 문 이 진 우 목 사

(Sermon) [2부] 독서의 기술 김 제 호 목 사

헌 금 봉 헌 [1,2,3부]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갈 이

(Offering)

봉 헌 기 도 ————— 이 진 우 목 사

(Offering Prayer)

교 회 소 식 ————— 이 진 우 목 사

(Announcement)

찬 양 ————— 찬송가 405(통458)장 ————— 다 갈 이

(Praise)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축 도 ————— 이 진 우 목 사

(Benediction)

예 배 후 찬 양 [1,2부] 찬송가 351(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다 갈 이

(Marching on Praise) [3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 우리 교회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합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예배

오후 3시 사화: 박 권 제 장 로

목 도 ————— 시 온 찬 양 대

성 시 ————— 시편 24편 9~10절 ————— 사 회 자

간 구 ————— 사 회 자

찬 양 ————— 찬송가 260(통194)장 ————— 다 갈 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기 도 ————— 최 상 결 집 사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16장 11~18절(신약 p.215)— 사 회 자

찬 양 ————— 시 온 찬 양 대

설 교 예수의 이름에 승리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진 우 목 사

광 고 ————— 담 임 목 사

찬 양 ————— 찬송가 499(통277)장 ————— 다 갈 이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축 도 ————— 이 진 우 목 사

수요기도회

오후 7시 30분 인도: 이 진 우 목 사

찬 양 ————— 시 온 찬 양 대

기 도 ————— [다음주:이옥남권사] ————— 황 영 옥 권 사

성 경 봉 독 —사도행전 13장 1~3절[신약p.209]— 인 도 자

설 교 - 교회에 모여서 무엇을 하나요? - 이 진 우 목 사

예배시간

주일1부예배	주 일 오전 7:00 분당	영아유치부	주 일 오전 10:00 제1교육관
주일2부예배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유 초 등 부	주 일 오전 10:00 유초등부실
주일3부예배	주 일 오전 11:30 분당	중 고 등 부	주 일 오전 9:30 로템나무
주일찬양예배	주 일 오후 3:00 분당	청 년 부	주 일 오후 2:00 청년부실
수 요 기 도 회	수요일 오후 7:30 분당	소 망 부	토요일 오전 10:30 분당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오후 9:00 분당	전 도 특 공 대	목요일 오후 2:00 교회식당
새 벽 기 도 회	매 일 오전 5:00 분당		

교회소식

- ◎ 광고
 - [금요기도회]
이번 주(6/14) 금요기도회는 “밀음2초원” 주관으로 합니다.
 - [태신자전도]
- 상반기 태신자 전도를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마10:5~6)라는 주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목장 예배에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일은 6월 30일(주일)입니다.
- [단원모집]
- 아래와 같이 제 5기 주니어셀라 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초등학교 1학년 이상(주일학교 학생) ◇연습시간: 매주일 오후 1시~1시 35분
- ◇문의: 박진숙 집사
- [여름행사 지원]
- 여름행사(성경학교, 수련회)를 위한 티셔츠 구입헌금을 하오니 초원별로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봉사자]
- “여름 성경학교/수련회 봉사자” 신청을 받습니다. 주일학교 각부서 여름행사에 봉사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여름행사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 서울남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오찬기도회 및 교육세미나가 6월 20일(목) 오전 11시 오류동 남부교회(전용호 목사)에서 있습니다. 해당자는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차량은 10시40분에 출발합니다.
- [총회주일]
- 다음 주일(6/23)은 “총회주일”로 지킵니다. 총회주일 헌금은 세례 교인 1인 1만원입니다.
- ※총회주일헌금은 세례교인이면, 1년에 한 번 헌금하는 것으로 총회발전과 교육, 국내전도, 선교, 복지, 은급, 출판 및 센터운영, 신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6월 행사 안내]
- 6월 23일(주일) 총회주일
- 6월 27일(목) 서울남노회 장로회 순회예배
- 6월 30일(주일) 태신자 초청 주일

이 번 주	다 음 주
*남전도회월례회(3부예배후/본당)	*찬양위원회월례회
*교육위원회월례회(찬양예배후/로템나무)	

◎ 환영합니다

- 19-8 김재복 성도(바울남전도회/고척12) 박정숙 집사 인도

◎ 교우소식

- 박성재 어린이(이지는 집사 장남) 부천베스티안 병원 치료 중

◎ 교회를 섬기는 분

	성 단	차	종 식	오전식사	주방봉사	교회청소
이번주	오현진 집사	김현수 청년	박권제 장로, 송영숙 권사	윤조훈 장로	밀음1 신도팀,기복,광명 밀음2 등촌	청년부
떡	방복순 집사 가정에서 대접하십니다(손녀 백일).					
다음주	담임목사	황경연 집사	박복례 권사 송부현 집사 김영진 권사	강영성 장로	밀음2 부천 목동 일산	하나 여전도회

6월	순 서	1 부		3 부		찬 양 예 배		수요기도회
		기 도	기 도	성경봉독	사회/인도	기 도	기 도	
	22주(2일)	김경업 집사	최성현 장로	박금옥 권사	임만순 장로	장윤주 집사	강은미 권사	
	23주(9일)	최상걸 집사	윤영준 장로	이강우 권사	김병을 장로	최귀남 권사	민옥희 권사	
	24주(16일)	박종삼 집사	윤조훈 장로	이근자 권사	박권제 장로	최상걸 집사	황영옥 권사	
	25주(23일)	장윤주 집사	강영성 장로	박순자 권사	최성현 장로	홍정훈 집사	이옥남 권사	
	26주(30일)	유현호 집사	김병을 장로	강은미 권사	윤영준 장로	유현호 집사	곽정순 권사	
	예배안내	박권제 최성현 윤영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